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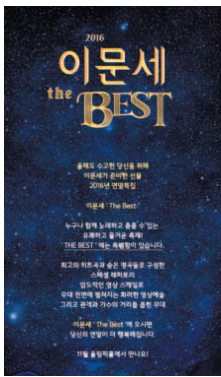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선생님의 일기' 2일 개봉 | 감독 니티шат 라톤 | 주연 레일라 분야샤·비스킷 위셋게우 | 110분 | 12세 관람가

전직 레슬링 선수 송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전기도, 수도도 없는 마을의 수상학교 임시 교사로 부임한다. 송은 우연히 전임 교사 앤의 일기장을 발견한다. 송은 일기장을 통해 앤에 대해 알아가고 점차 빠져든다. 1년 뒤 수상학교로 돌아온 앤은 떠난 송이 써 놓은 일기장을 발견한다. 국내 관객에게는 다소 낯선 태국영화다. 하지만 로맨스는 국적과 무관한 장르. '무공해 청정' 로맨스라 할 만한 이야기다. 일기장을 매개로 피어나는 따뜻한 러브스토리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실화가 바탕이다.

●이문세 '더 베스트' 11월17·18일(오후8시)·19·20일(오후6시) |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120분 | 만7세



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생각나는 목소리. '가을이 오면' '옛사랑'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등 가을 감성이 짙은 노래로 폭넓은 세대의 팬을 보유한 '안티' 없는 가수 이문세가 찾아온다. 팬들과 더욱 활발하고 깊게 교감하기 위해 돌출 무대로 구성하는 등 객석과 거리를 좁혔다. 무대 전면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하는 영상과 앙상블로 관객의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각오다. 문의 02-3272-3133.

●거미 '필 더 보이스 시즌2' 11월26일(오후6시)·27일(오후5시) |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 120분 | 만7세



여성 솔로가수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선 거미가 무대에서 저력을 과시한다. 홀로 노래를 부르지만 무대가 버겁진 않다. 장악력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매특허인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감동을 넘어 관객에게 전율을 안긴다. 'OST' 여왕'답게 이번 공연에서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의 주제기도 선보인다. 가수라면 역시 노래. 말이 아닌 음악으로 2시간을 가득 채울 거미의 향연이 펼쳐진다. 문의 1544-1555.

청순하게, 강인하게 15년간 날 사로잡은 크리스틴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뮤지컬 '팬텀'의 크리스틴 전문 배우 김소현

'우아함'이란 타고난 재능 같은 것이 아닐까. 책을 읽어 지성을 얻고, 운동을 해 몸매를 가꾸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미모를 바꿀 수는 있었지만 우아함은 다르다. 돈과 실력 있는 부모가 있고, 명품을 아이들 딱지 모으듯 사들이고, 하루 종일 말을 탄다고 한들 원래부터 없던 우아함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김소현이란 배우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우아함의 향기다. 그윽하고 달콤한 데다 상냥하기까지 하다. 굳이 입을 열어 "아름다운 밤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김소현과 함께 하는 시간은 참 아름답게 흐른다. 물론 무대에서도.

'영원한 크리스틴' 김소현이 가을가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카메라 앞에 섰다. 김소현은 11월 말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크리스틴 역으로 관객과 만나게 된다.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김소현이 11월26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에서 크리스틴 다에 역을 맡았다. 김소현은 '크리스틴'의 화신 같은 배우다. 2001년 '오페라의 유령(이하 오유)' 한국 초연 때 크리스틴에 발탁된 이후 250회 이상 크리스틴으로 무대에 섰다. 김소현은 "초연 때 7개월, 재연 때는 1년 이상. 그 밖에 방송이나 콘서트, 행사까지 포함하면 나도 셀 수 없을 정도다"라며 만족해 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틴은 또 다르다. '오유'가 아닌 '팬텀'의 크리스틴이기 때문이다. 두 작품의 원작은 프랑스의 추리소설가 가스통 르루가 쓴 소설이다. 그러니까 같은 원작에서 태어난 다른 작품이다. 당연히 크리스틴도 닮은 듯 다르다.

"작품부터가 너무 다르다. 처음엔 낯설어서 힘이 들었다. '오유'의 크리스틴이 여성스럽고 청초하고 가련한 쪽이라면, '팬텀'의 크리스틴은 활발하고 똑똑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헤쳐 나갈 줄 아는 사람이다. 저쪽이 공주라면 이

쪽은 사람이랄까. 좀 더 인간적인 크리스틴? (웃음)"

주인공인 팬텀도 다르게 그려진다. 김소현에 따르면 '오유'의 팬텀이 공포와 신비감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팬텀은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같은 팬텀'이다. 김소현은 "처음 대본 리딩을 할 때 팬텀이 말이 너무 많은 데다 농담까지 해서 놀랐다"고 했다. 실제로 뮤지컬 '팬텀'에서는 '오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팬텀의 어린 시절이 세밀하게 그려진다.

●크리스틴 독점배우의 15년 내공에 거는 기대

뮤지컬 '팬텀'에서 김소현이 아끼는 장면이 하나 있다. 오페라극장 지하 미궁에서 팬텀과 크리스틴이 피크닉을 하는 장면이다. 어린 팬텀을 위해 엄마가 마련해 준 장소다. 이곳에만 오면 김소현은 눈물이 멈출 수가 없다. 지금은 나오는 대로 둔다.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는 장면에서는 연출자가 자제를 요구할 정도로

'벽벽' 소리를 지른다. '연습 때 갈 때까지 봐야 한다'는 김소현의 연기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시간을 들여가면서 감정을 쥐고 또 쥔다. 그래야 막이 올라갔을 때 감정과 연기, 노래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음악도 무대도 화려하고 좋지만, 분병 가수를 올리는 작품입니다. 팬텀과 크리스틴의 아픔과 기쁨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틴 전문배우'를 넘어 '크리스틴 독점 배우'의 경지에 오른 듯한 김소현. 누군가는 크리스틴의 아름다움을, 누군가는 크리스틴의 청순함을, 누군가는 활달함과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김소현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있어 크리스틴이 가진 우글쭇글한 아름다움의 진짜 삶의 결을 깨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15년은 그런 시간이다. 돈과 분칠만으로 다다를 수 없는, 진정한 우아함이 그려진 것처럼.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책 읽는 주말

●향기의 미술관 (노인호 저 | 라고디자인)



예술을 사랑하는 조향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명화 감상법.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 페르메이르의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르누아르의 '물랭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 모네의 '수련', 앙리 루소의 '꿈'까지 명화의 향기를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향기와 접목한 뉴욕에서의 아트 투어 경험을 되살려 국내에서 '향기의 미술관'이라는 강연을 하고 있다. 잠들어 있던 후각을 깨워 온몸으로 그림을 감상해 보자. 저자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주문한다. 향기 안에서만 눈을 감아라. 그리고 진짜 감상을 시작해 보라고.

●집학콘서트 '책, 과학이 만든 괴물' (공공인문학 포럼 저 | 스타북스)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북한 핵 개발의 최근 흐름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설마"하는 안일함으로 극심한 불안증에 빠져 살고 있다. 그래서일까. 핵의 위험성에 비해 북한 핵에 관한 책이나 핵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교양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책은 핵무기 탄생과정, 세계의 핵보유국 실태, 북한 핵개발과정, 핵무기 공격에서 살아남는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엄마 아빠 어디가

●서울빛초롱축제 (11.4~20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수표교 1.2km)



올해로 8회째 축제. 매년 11월 첫째 금요일부터 셋째 일요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 올해는 한강을 주제로 한 전시를 비롯해 지자체와 세계국가, 주요 기관, 라이트아트 작가, 어린이와 캐릭터 등 5개 테마로 나누어 열린다. 광통교 상단에서는 열기구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소원등 달기와 소망등 띄우기, 2017 신년소원지달기 등등이 있다.

●순천만 갈대축제 (11.4~6 순천만과 동천 일원)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으로 이루어진 순천만에서 열리는 가을 축제. 황금빛 갈대 물결과 함께 이곳을 찾은 수많은 철새를 볼 수 있다. 연륙그드 갈대 음악회, 흑두루미 복권서트, 김승옥 작가와 떠나는 무진기행 등의 문화행사와 생태놀이, 철새체험, 갈대체험 등의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갈대사진관과 군화전시회 등의 전시행사, 전국대학생 순천만 무진기행 백일장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눈으로 즐기는 식도락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오픈 키친·푸드 트럭...특급호텔, 강남 따라잡기

〈그랜드 하얏트 서울·JW메리어트 동대문〉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절박감이다. 최근 특급호텔의 식음료(F&B) 분야는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 서울의 특급호텔 중 레스토랑에서 영업직자를 보거나 매출감소를 겪은 곳이 적지 않다. 급격히 바뀌는 외식트렌드 때문이다. 요즘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 남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만족하는 것을 찾는 '가치소비'를 더 중시하는 '포미(Forme)족'이 외식문화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비싸고 고급스런 요리보다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개성 있는 메뉴의 오픈 셰프 레스토랑이 파인 다이닝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322 소월로'를 기획한 그랜드 하얏트 아·패왕 양 식음운영전략 부사장 안드레아 스탈더는 "해외에서 요리를 수련한 셰프들이 그곳 요리문화를 가져와 토착화시키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상권을 이루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메뉴 역시 '우리' 이런 것도 있다'고 백화점식



(왼쪽 사진부터)오픈 키친과 바 테이블석이 중앙에 자리 잡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스테이크 하우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신규 부티크 레스토랑 중 포치전문 이자카야를 표방한 '텐카이'의 메뉴. 패션 디자이너와 의 콜라보로 눈길을 끈 JW메리어트 동대문의 푸드트럭 '왓 더 트럭'

로 나열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에 치중했다. 스키 전문 카우리는 오마카세(주방장 특선)를 중심으로 회와 초밥에 철저히 집중하고, 스테이크 하우스는 그릴이나 팬 프라이징 중심의 다른 곳과 차별화를 위해 유럽식 피라오브 스테이크를 도입했다. 식재료에서도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사용해 오는 스테이크의 강점을 살렸다. 칠판요리라면 으레 떠올리는 일본식 조리법을 벗어나 마주한 고객 취향에 맞춰 셰프가 융통성 있게 메

뉴 라인업을 조율하는 데판의 방식도 이채롭다.

●푸드트럭 운영하는 호텔, 배달서비스까지 도입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시도한 변화는 서울의 다른 특급호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이하 JW메리어트 동대문)은 요즘 수제 버거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테이크 전문매장'BLT 스테이크'가 10월25일 론칭한 미국산 블랙 앵거스 비프 버거는 동대문역을 기준으로 반경 4km 지역에서 배달로 주문해 먹을 수 있다. 비록 배달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내야 하지만, 찾아오는 고객만 상대하던 호텔 레스토랑의 서비스 방식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다.

JW메리어트 동대문은 이와 함께 젊은층이 선호하는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한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있다. '왓 더 트럭'이라는 애칭을 가진 푸드트럭은 패션브랜드 '비온드 클로젯' 고대용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모히토, 아이스크림, 커피, 티 등의 음료를 판매하는데 겨울 시즌을 겨냥한 스페셜 메뉴도 준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